

아함경

에서 건진 지혜 (제50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

출전 : 집아함경 제11:27경:2-75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2003년을 보내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 오길

200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작년에 잘한 일을 다시 발심하며 시작했던 신재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미군 계도차에 스러져간 우리의 중화 생물을 추모하는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우리에게 전두병 파병을 요청하기까지, 올해는 유난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 한 해였다.

신재가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차라리 다른 나라니까, 라고 위안을 삼으며 조금은 참을 만 했다. 신재를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같은 입으로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을 여담으로 있으면서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정작 지금은 야당이 라는 이유로 거침없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요즘 들리는 비리 사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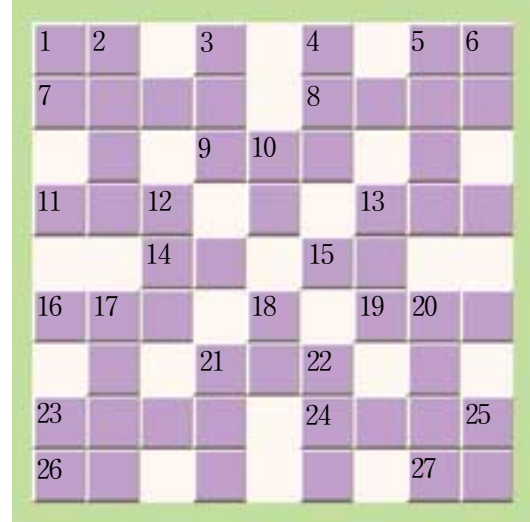
온전히 자신들의 이야기면서 언론 탄압을 의치고 독재 정권타도와 단식 투쟁을 외친다.

신재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법'이다. 자연 그대로의 당연한 법칙을 따르자는 말이다. 좋아함 <상적유경>에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연기의 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여래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이 법은 상주(常住), 법주(法住), 법계(法界)이니라. 여래는 다만 이 법을 자각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들에게 설하니라"고 한다. 이처럼 변치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잡아함 <박카리경>에서 부처님은 박카리 비유에 "법을 보는 자가 여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다. 상식 그대로 사는 세상,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세상이 우리 곁에 왔으면 좋겠다.

최원섭(성철선사상인구원 연합회)

상식퍼즐



1. 몹시 바쁘고 고된 직무 5.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법·사법·행정부부 통틀어 이르는 말 7. 아시아의 동부 8.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 9. 충남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고려시대 왕건 사찰 일명 '은진미륵'이라는 미륵대불이 유명 11. 취타음악을 크게 편성하여 연주하는 곡으로 왕의 거동 등에 사용 13. 정당한 위치 14. 변치 않는 타고난 본성 15.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 16. 여름을 담는 통 19. 굵은 소금 21. 아직 확고에 들어가지 아니함 23. 한 글자도 빼놓지 않은 모든 곳 24. 스스로의 힘으로 한 살림을 이룬 26. 분할 미음 27. 음식을 장만하는 일

<452호 '상식퍼즐' 정답>

다	비	대	대	염	전
소	일	거	리	의	사
비	인	로	왕	궁	공
손	재	수	동	복	덕
소	음	덕	장		
참	회	분	매	물	난
광	조	물	주	공	리
일	반	명	사	장	생
부	조	원	자	락	망

1. 급격하게 변동함 2. 자기를 잊고 무엇에 흠뻑 취함 3.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거짓으로 모인 것이어서 어떤 모양이나 실제로 이뤄진 '나'가 없다고 관하는 것 4. 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 5.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가해행위 6. 남편과 아내 10. 온도가 아픔 따위를 분간하는 피부의 감각 12. 타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아내는 작용 13. 바른 가르침의 행 17.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곡식을 찧는 방아 18. 크게 취함 20. 소원이 이루어짐 21. 쌀과 곡류 등을 취급하는 상인 22. 학업에 드는 돈 23. 사람의 객실이나 선원 강연 등에 머물기를 정하는 일 25. 스님들이 입는 법복. *453호 퍼즐 정답은 신년특집 454호 26면에서 확인하세요.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 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법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자언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물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계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향 물질의 힘이 담긴 향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세요.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영연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경계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플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정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